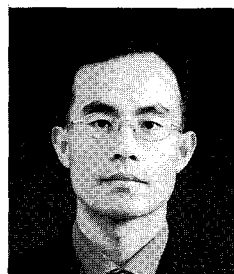


##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포인트(Ⅱ)



이 동 우

메리알코리아(주) Avian Technical Manager  
수의학 박사

### 1) 올바른 사양 및 환경 관리

입추시 온도 32~33도, 습도 70%의 유지,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목이다. 겨울철 입추계군의 폐사율이 높고 생산 성적이 불량한 것은 온도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입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하게 되면 서둘러 병아리 박스를 열지 말고 깔짚 등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사가 충분히 가온된 상태에서 병아리를 풀어 주는 것이 닭의 입장에선 유리하다. 낮은 육추 온도의 피해로는 병아리의 활동을 억제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 다리 이상 등 약추발생과 폐사가 증가된다.

육추시 필히 점검할 사항으로는 적정수용 밀도, 적정 급이/급수 면적을 확보해 주고,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밀사방지중 평당 사육수수는 많은 관심이 있으나 적정 급이기와 급수기 확보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과도한 밀사와 육

계사육 말기(4주령 이후)의 환기 불량에 의한 산소 부족 현상은 후기 증체 불량과 질병 발생에도 큰 관련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육계 돌연사 증후군(SDS, 발랭이)은 건강한 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이며 주로 다리를 쭉 뻗고 뒤집힌 상태에서 죽는다. 폐사율은 보통 0.5~4%로 다양하며 발병 일령은 3~4주령 사이가 많다.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사성, 유전적, 영양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안소견은 급작스런 성장을 하고 사료섭취도 매우 양호하며 부검소견에서는 간의 종대 및 창백 담즙이 비어 있고, 신장의 창백, 폐에 물이 차 있고 울혈, 심장의 경우 심실의 수축 및 비장과 흉선의 울혈이 관찰된다. 현재까지 간, 심장, 신장 등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문제가 증폭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밀사방지, 각종 스트레스 방지와 함께 지방대사의 활성화를 위한 간기능 강

화제의 투여(24~28일령, 4일간)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습도관리중 특히 필자의 경험상으로는 국내 기후 여건에서 입추 초기 습도 70%의 유지는 아무리 계사 바닥에 물을 흠뻑 뿌려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조건임으로 특히 어린일령에 낮은 습도로 병아리가 탈수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육계의 점등관리는 일반적으로는 2주령정도까지는 20룩스의 조도를 유지하다가 이후부터는 5룩스 이하로 다소 어둡게 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닭이 겨우 사료나 물만 찾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조도일수록 활동성 저하와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어 증체에 유리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밝은 계사에서는 카니발리즘 발생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 2) 계대 질병 관리

우선 난계대성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와 살모넬라를 들 수 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종계 백신접종을 통한 종계의 청정화 전략이 현재 추진중이다.

가금티푸스는 국내에서 1992년도에 처음으로 갈색 산란계에서 확인된 이래로 주로 산란

계 농장에 확산되어 오다가 1998년 말경 부터는 육용종계에서도 감염되어 육용종계에서는 산란계에서와 같은 폐사 및 산란저하는 관찰되지 않으나 육계의 품질을 저하시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금티푸스 근절의 장애 요인으로는 추백리와 마찬가지로 난계대 전염이 되고, 야생조류 및 설치류 등이 보균원으로 작용하며, 사료에도 균이 잔존할 수 있으며, 각종 기계적인 전파 요인들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

효과적인 가금 티푸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난계대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계의 경우 만약 감염확인시 전계균을 과감히 도태처리하는 것이 균박멸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만약 전계균을 도태하지 않고 추백리 진단액을 이용하여 검사후 양성계를 도태시킨다면 검색도태 작업의 어려움과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양성율을 줄이려면 한계균의 거의 대부분의 닭을 도태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현재의 예방차원에서는 농장내 Biosecurity의 철저한 준수가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하다. 육계의 계사라도 출입시 발판 소독수는 필히 사용하고 계사내, 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발병시 투약으로 겐타마이신(10mg/kg) 또는 엔로후록사신(5mg/kg)을 이용할 수 있으나 티푸스균이 세포내에도 기생하므로 근본적인 치료는 안된다.

백신은 현재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백신을 실시한다면 N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균과 사균(오일백신)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히 난계대를 차단하는 효과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계**

